



마당놀이 '홍길동이 온다'는 8일에 이어 11일 오후 3시, 9일과 10일 오후 7시30분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에서 열린다. 사진은 '홍길동이 온다' 공연 모습.

# “풍자·해학 담긴 속시원한 한마당, 광주 반응 기대”

## 배우에서 감독으로 김성녀 국립극장 연희감독

### ‘홍길동이 온다’ 11일까지 2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 시대 초월 공감·울림… 주인공 女 더블캐스팅 주목도

“홍길동이 온다”는 원조 마당놀이꾼 3인방이 30여년 만에 당시 문정 작품입니다. 30년전 광주에서 공연했을 당시 굉장한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었던 만큼 후배들과 함께 꾸린 이번 무대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 기대가 큼니다.”

김성녀 국립극장 연희감독은 지난 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 빛 라운지 열린 ‘홍길동이 온다’ 프레스콜에서 이처럼 말했다.

이어 김 감독은 “30년 전 구동체육관에서 홍길동을 연기하면서 관객들과 호흡했던 게 생생하다. 당시에는 어르신들이 주 관객층이었다”며 “광주는 예향의 도시답게 문화예술을 보는 눈이 높아 반응이 즉각적이고 박수가 잦다. 광주와 전주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면 어디서나 성공적인 공연이 될 거라고 말하곤 했다”고 회상했다.

‘홍길동이 온다’는 국립극장 마당놀이 시리즈로, 지난해 제작해 누적 관객 2만6000여명을 기록하며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 잡았다. 광주에서의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동네에 오게 오네 프로젝트로 마련됐다.

특히 작품은 지난 1993년 초연된 극단 미추 ‘홍길동전’의 손진책 연출, 박범준 작곡, 국수호 안무, 당시 홍길동으로 분했던 김성녀 연희감독이 다시 맡아 오늘날 시대상을 반영해 세대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김성녀 작곡가가 합류해 전통 가락에 현대 리듬을 더했고, 연주는 중앙국악관현악단이 맡는다.

‘홍길동이 온다’는 고전 소설 ‘홍길동전’을 바탕

으로 영웅 서사를 동시대 감각으로 되살린다. 서자로 태어나 호부호형한 홍길동이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 활빈당을 이끌고 탐관오리를 응징한다.

청년 실업과 불평등, 사회 단절 등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무대 위로 끌어와 시대를 초월한 공감과 울림을 전한다.

웃음과 흥 사이 전라도 사투리의 구수함과 익숙한 케이팝을 극에 녹여 과거와 현재를 잇는다. 뿐만 아니라 전통 무술과 군무, K팝 안무, 8m 높이에서 공중을 가르는 와이어 액션 등 전통 연희 요소와 현대 공연의 특징을 두루 담아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김 감독은 “‘홍길동이 온다’에서 백성들이 원하는 세상은 ‘개혁이 필요없는 세상’, ‘공정한 세상’이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원하는 것이 아닐까”라며 “30여년 전과 현재도 변함없이 같은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선보이는 게 가슴이 아프지만, 그렇기에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길동을 연기하는 더블캐스팅 배우가 여성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소연은 키가 커서 웅장한 남성적 느낌을, 김윤희는 작은 체구와 통통튀는 매력에 각각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녀 감독은 마당놀이의 생명은 관객과 어떻게, 얼마나 소통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마당놀이를 즉흥적인 재즈에 비유했다. 관객은 객석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배우와 함께 호흡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해서다. 배우들의 애드립이 극을 이끄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기에 연습하면서 즉흥성을 기르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김성녀 국립극장 연희감독.

는데 집중했다고 한다.

그는 “마당놀이는 현재 발을 딛고 선 마당에서 하는 놀이다. 관객의 호흡에 따라 달라지는 연기, 풍자와 해학을 잃지 않는 게 마당놀이의 매력”이라며 “옛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마당놀이 정신을 통해 광주시민들이 속 시원한 한 마당을 즐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길동이 온다’는 8일에 이어 11일 오후 3시, 9일과 10일 오후 7시30분에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열린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ACC재단, 국립극장 제작 ‘홍길동이 온다’ 프레스콜 가보니…

### 무대·객석 ‘함께 어울리는 판’ 빛났다



홍 판서의 서자로 태어나 신분차별을 극복하고 활빈당을 조직해 가난한 백성을 돕는 홍길동. 고전소설 속 홍길동이 이 시대 관객과 호흡하는 ‘K-히어로’로 다시 태어났다. 하늘을 가르고, 춤을 추며, 신명나는 한 판을 받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지난 7일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마련한 국립극장 제작 마당놀이 ‘홍길동이 온다’ 프레스콜에서다.

공연은 피리와 가야금, 아쟁 등의 시원스런 선율로 시작을 알리며 분위기를 압도한다. 이어 흥겨운 길놀이와 돼지머리를 놓고 풍요와 안락을 기원하는 고사를 펼치며 관객을 자연스럽게 무대로 끌어들이고, 시작부터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 어울리는 판’임을 공고히 한다.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마당놀이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동시대적으로 과감히 확장했다는 점이다. 익숙한 고전 서사를 단순히 재현하는데 머물지 않고, 유튜브와 가짜뉴스, 정치와 언론 풍자를 극 속에 녹여내며 현재의 시공간으로 불러들인다. 청년 실업과 사회적 불평등 등 시대적 문제를 마당놀이 특유의 해학으로 풀어내는 점 역시 인상적이다. 웃음을 유도하지만 그 웃음은 가볍지 않다. 관객은 웃다가도 현재의 현실을 떠올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관객은 더 이상 보는 사람에 머물지 않는다. 배우들은 관객의 추임새와 때창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관객은 이들이 던지는 추임새에 응답하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극의 일부가 된다. 그러면서 공연장은 자연스럽게 광장으로 변모하고, 마당놀이의 생명력이 극대화되는 동시에, 마당놀이이라는 장르가 지닌 집단적 에너지를 되살린다.

무대 연출도 돋보인다. 전통 무술을 기반으로 한 아크로바틱과 케이팝 안무는 역동적인 장면을 만들어낸다. 특히 8m 높이의 매달린 장치들 활용에 배우들이 공중을 가로지르는 장면은 이번 공연의 백미다. 5m 상공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홍길동의 모습은 고전 속 상상력을 시각적으로 구현해 강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50여명의 출연진이 펼치는 군무와 노래 등은 공연의 스케일을 한층 키운다. 여기에 국악 관현악과 타악 연주가 더해지며 전통과 현대의 사운드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진다. 익숙한 장단 위에 얹힌 현대적 리듬은 세대 간의 간극을 자연스럽게 좁힌다.

‘홍길동이 온다’는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공연을 공동체적 경험의 공간으로 바꿔 이야기와 몸짓을 통해 시대를 비춘다. 결국 이 작품은 홍길동이 과거의 인물도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또 다른 얼굴일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무대 위에서, 관객과 함께 다시 쓰인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회화·시가 만나는 콜라보 ‘풀꽃’ 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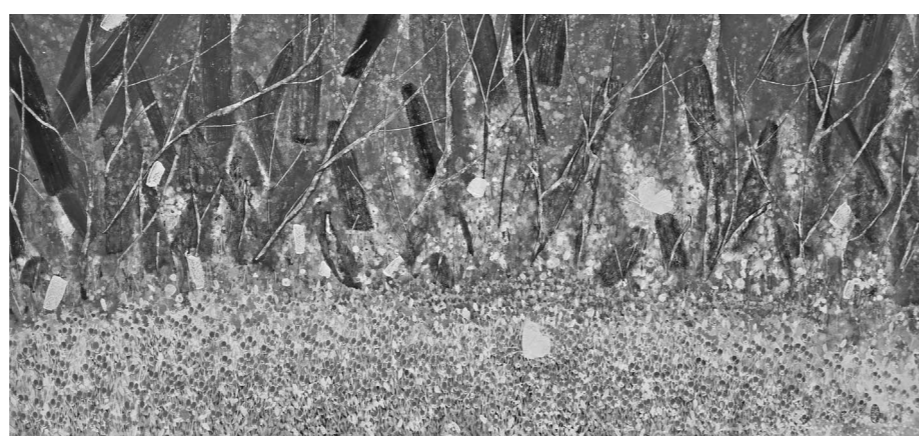
대담미술관, 염순영 작가·장성희 시인 협업 6월 30일까지…“마음에 스며들어 오래 남길”

회화와 시가 만나는 콜라보 전시가 열린다. 대담미술관(관장 정희남)이 지난 3월 18일 개막, 오는 6월 30일까지 ‘아무도 모르게 피어, 우리 안에 오래 머무는’이라는 타이틀로 열 기획초대전에서다.

이번 기획초대전은 염순영 작가와 장성희 시인이 함께하는 콜라보 전시로, 회화와 시가 결합된 감각적 경험을 선보인다. 카페 공간을 포함해 총 24점의 회화 24점, 시는 4점 등 총 28점.

전시는 염 작가가 오랫동안 주목해온 ‘작은 순간들’에서 출발한다. 바람에 흔들리며 자라는 풀꽃, 눈에 띄지 않지만 멈추지 않는 존재들, 작품 위에 겹겹이 쌓인 점과 색의 결에는 그 느린 시간이 고스란히 스며 있다. 풀꽃이 계절을 따라 조금씩 풍경을 바꾸듯, 염순영의 회화 역시 조용한 변화를 오래 바라보게 만든다.

많은 이들이 염 작가의 작업에서 나타낸 시인의 ‘풀꽃’을 떠올리지만, 이번 전시는 기존의 시를 인용하는 방식이 아닌, 작품을 마주한 자리에서 새로



‘풀꽃도 꽃이다’

운 언어가 생성되는 순간에 주목한다.

장성희 시인은 염 작가의 작품을 깊이 들여다보며 떠오른 감각과 사유를 시로 풀어낸다. 색과 점으로 이어진 풀꽃의 시간은 시로 다시 숨을 쉬고, 회화와 시는 하나의 감각으로 확장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무심히 지나쳤던 작은 꽃 하나, 바람에 흔들리며 풀잎 하나와 같은 일상의 순간들을 다시 바라

보게 하며, 관람객 각자의 기억과 감각을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 전시를 기획한 최아영 부관장은 “일상 속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작은 순간들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고, 각자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어 오래 남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해설로 만나는 ‘전통음악·궁중무용의 미학’

### 국립남도국악원, 11일 진악당서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1일 오후 3시 진악당에서 양주풍류악회, 정재연구회 초청 ‘해설이 있는 토요상설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관객들이 국악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해설이 포함된다. 사회와 해설을 통해 각 작품의 역사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을 설명하며, 전통 공연예술의 의미를 깊이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해설은 주제군 대표(정호문화재단·한양대 겸임교수)가 맡는다.

공연에서는 우리 전통음악의 대표적인 기악곡과 궁중무용, 가곡 등 다양한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천년만년 수명이 이어지길 기원하는 기악 합주곡 ‘천년만세’를 시작으로, 조선 궁중무용의 대표작 ‘춘앵전’과 ‘무고’, 전통 성악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남창가곡, 맑고 고아한 선율의 ‘청성곡’, 그리고 하늘처럼 영원한 생명을 기원한 ‘수제전’ 등

우리 전통예술의 정수를 담은 작품들이 공연된다.

연주에는 전통음악의 깊은 풍류를 이어가고 있는 양주풍류악회가 참여하며, 궁중무용 연구와 전승에 힘쓰고 있는 정재연구회가 함께 무대를 꾸민다. 특히 궁중무용 춘앵전은 무용가 이미주가 출연해 섬세하고 우아한 궁중 춤사위를 선보인다.

양주풍류악회는 국내 최정상급 국악 명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선조들의 풍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거문고 명인 정대석, 피리 명인 정재국, 대금 명인 임진옥 등 내로라하는 국악계 명인들이 대거 출연한다. 또한 정재연구회는 궁중무용과 의식무를 연구·보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활동을 지속하며 전통예술의 계승에 기여하고 있다.

공연은 무료이며, 공연 전후 진도읍사무소와 국악원, 장등문화센터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 버스를 운영한다. 관객들을 위해 11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